

# 한국 농촌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 충청북도 청원군 산마을을 중심으로 —

Changes of Rural women's Economic Role in a Korean Village  
— The Case of San Village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李 英 美  
부 교 수 金 周 姬

Sung Shin Women's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tudent Lee Young-Mi  
Associate prof. Kim Joo-Hee

## 〈目 次〉

- |                         |                       |
|-------------------------|-----------------------|
| I. 연구의 목적               | III. 연구방법             |
| II. 농촌의 사회적 변화와 농촌여성 연구 | V. 산마을 여성의 경제적 역할의 변화 |
| IV. 산마을의 일반적 성격         | VI. 결론 및 제언           |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present the concret date on the contents of the economic role and their change in the recent decade among women in a Korean Village. The Case Study method was used and the data was obtained through the participant observation.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three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effect of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upon the agricultural labor pattern of women. The second part examines how the introduction of a golf course and the textile factory in the vicinity affects the labor pattern among village women. The last part tries to demonstrate that the increasing contribution of women to the village economy has not yet produced any positive effect to their social status in the village. This is seen through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wo important village activities, one social(Tae dong-Gae) and the other ritual(Mokshinjae).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echanization of farming is responsible for the increasing marginalization of women's labor in farming.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rice cultivation. Horticulture is still cultivated by women. As the mechanization progresses further, this trend will be more articulated. Secondly, it is found that women are actively utilizing the new external economic opportunities. In fact they are found to prefer those non-farming works to the traditional farming work. The former offers them less burdened work, less working hours, and more income than the latter.

Lastly, women are found to be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the two important village activities. Only men are participants in them, and women only provides the labor for the preparation of food and the necessary chores.

## I. 연구의 목적

오늘날 농촌여성들이 과중한 역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연구들은 농촌여성의 역할이 지위와 불일치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는 있으나 농촌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한 연구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농촌 마을에서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농촌여성의 역할을 그려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마을(가명)의 외부에 있는 골프장과 방직공장의 농외 취업 기회가 마을에 미친 전반적인 변화의 상황을 살펴보고 특히 여성 농업노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문제와,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나마 농경기계화의 진전이 산마을 여성의 농업노동력에 어떤 변화를 제공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기간중에 있었던 산마을의 중요한 사회적 행사인 "대동계"와 주민들의 의례적인 행사인 "목신제"를 통하여 마을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즉 여성의 높은 경제적인 참여도가 마을내 그들의 사회적·의례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 II. 농촌의 사회적 변화와 농촌여성 연구

### 1. 농촌사회의 변화

우리나라의 농가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영농할

동을 하는 가족노작적 소농경영이므로 농가,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개별 농가에서는 일정한 경영규모에 대한 가족노동력 부족의 문제이며 동시에 그 부족한 가족노동력을 일시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고용노동자와 품앗이 등 공동농작업관행의 감소문제이다(최용주, 1988). 이같은 농촌인구의 감소현상은 여러가지 농업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박현채(1984)는 농사짓는 농민의 사회적 빈곤과 관련하여 농업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농민의 사회적 빈곤의 원인으로 첫째 농업생산의 상대적 정체를 들고 있다.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1962년에서 1982년까지 성장율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로 노동간 소득격차의 확대인데 통계적으로 농민층의 자기몫의 실현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은 주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농민층은 항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더우기 도시근로자 소득이 낮은 임금 계층만에서 추계되고 농가소득이 농민상층부 계층까지를 포괄한 것이라는 통계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농민의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째로는 광범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로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농업생산력은 떨어지고 노동조건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네째는 의존효과<sup>1)</sup>에 따른 지출증대와 농민경제의 악화

1) 의존효과 : 농민은 자기가 재생산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농민경영의 농업소득이나 농가소득이 실현된 정도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거대자본이

이다. 즉 농민은 저농산물 가격정책하의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대중매체를 통해 만들어 내는 기준에 따른 생활을 위해 부단히 사들이고 그 과정에서 농민경제는 구조가 더욱 나빠지게 된다. 다섯째는 낮은 사회적 생산력과 저농산물 가격정책에 따른 저소득, 지출의 증대와 부등가교환으로 내부적인 축적을 이룩하지 못하고 소농경영으로 정체된 채, 소작제도의 광범한 재생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우재(1977)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영세소농경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농<sup>2)</sup>이라 할 수 있는 1정보 미만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67.1%이며 5단보 미만의 농가는 35.4%나 된다. 반면 2정보 이상의 농가는 전체 농가의 6.6%인데 전체 경지면적의 21%를 경작하고 있다. 둘째, 기생지주제의 재생경향으로 2정보 이상을 소유농가 토지의 66%가 사실은 도시자본가들에 의해 점유당하고 있다. 셋째, 농가경제의 상대적 빈곤으로 이것은 농가의 소득수준, 도시근로자와의 비교, 농가의 부채동향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사회의 변화를 농촌여성의 노동증가 문제와 연결시켜보면, 농촌의 열악한 상태와 도농간의 소득격차→생산연령층 인구의 도시유출→농촌의 노동력 부족→농업노동력의 여성화·고령화의 고리로 표현될 수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 중에서 40세 이상의 여성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5년의 37%에서 1975년의 48%, 1980년의 60%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정영일, 1984)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결국 농가가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기계의 도입을 통한 부족한 노동의 대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 농기계의 주종은 경운기이며 그 다음으로 이앙기와 콤바인의 순서이다. 경운기는 1972년 이후 공급이 급증하여 1986년 말에는 총 68만대로써 농가 2.6호당 1대씩 보유하고 있다. 최재석(1988)에 의하면 오늘날의 기계화는 주로 임작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농층 혹은 부농층보다는 경작규모가 영세하더라도 노동력이 풍부한 청·장년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산마을의 기계화율은 저조한 편(이앙기, 트랙터, 콤바인의 경우만 1987년과 1989년을 비교하였음)으로 이앙기는 1987년에 4대에서 1989년에는 6대로 2대가 증가하였고, 콤바인과 트랙터는

1987년에는 없었으나, 1989년에 콤바인은 2대가 트랙터는 1대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위의 농기계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 농업에 이용되고 여성들은 농기계의 사용에서 소외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의 기계화는 농업에서 여성의 참여를 주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농기계를 요구하는가 하는 농경조건 변화가 실제로 여성의 농업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Ember(1983)과 Burton & White(1984)의 연구——농경의 집약화(intensification)와 쟁기의 이용(plowing)은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를 감소시킨다——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앞에서 간략하게 제시한 한국농촌의 현실을 농촌 여성과 연결시켜볼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농촌에서의 젊은 노동력의 유출은 여성의 농업에서의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마을내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심화시켰고, 후자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의 기계화는 여성의 농업참여를 감소시키는 결과(특히, 논농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2. 농촌여성에 관한 선행연구

1960년대부터 국가주도로 진행된 산업화 우선정책은 농촌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청·장년층 인구의 계속적인 이농현상(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은 농촌여성이 비자발적으로 농업노동에 참여하도록(고대문화, 1984) 하였다. 이에 대해

집단매체를 이용한 과대선전에 의한 수요창출노력에 맡겨 들어 자기소비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거대 자본이 제시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뒤떨어졌다는 소외의식이 자기과시의 자위수단으로서 결맞지 않는 소비에 매몰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시아의 농촌과 공업화 현실, pp.182-183, 백산서당, 1983).

- 2) 소농: 자기 가족노동력으로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지도 착취당하지도 않는 자작 또는 자작소농을 의미하며 경영의 목적이 자기소비에 있다. 그러므로 지주로서의 지대나 농경영자로서의 이윤이 실현되지 않아도 농업경영을 지속하는 근거는 자기가 노동자이고 지주이며 농업경영자라는 3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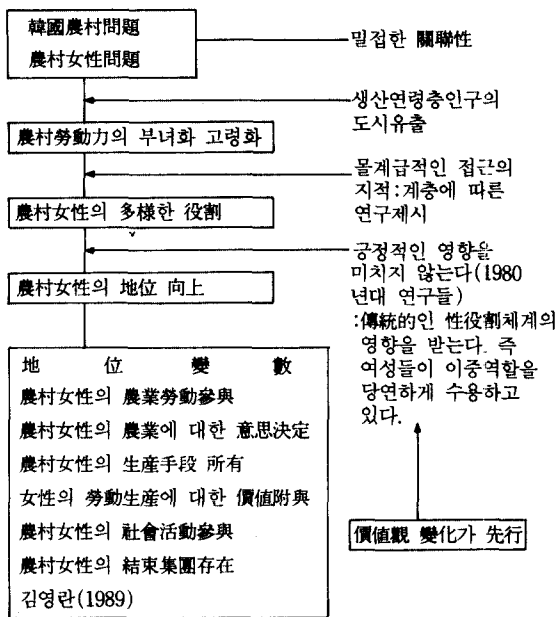
여 문옥표(1987)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측면과 그에 따른 과도한 자기착취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효재·김주숙(1977)의 연구는 1970년대의 대표적인 것으로 농촌여성의 역할을 주부, 경제활동자, 지역사회활동 및 기타 家外活動을 하는 시민의 역할로 구분하면서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이순전(1977)은 농촌여성이 가사의 부담으로 사회참여 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1970년대는 1980년대에 비하여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광원(1979)과 이근수(1982)의 연구에서 농업노동의 부녀화, 고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특히 1980년대의 대부분 연구들(조형, 1981. 이남구, 1984. 김주숙, 1981, 1982, 1983, 1984, 1986, 1987, 1988, 1990. 강남식, 1984. 윤정혜, 1984a, 1984b. 유귀옥, 1986. 권영자 외, 1987. 김영란, 1989)은 과중한 역할분석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농촌여성의 지위와 불일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여성의 역할변화 및 중대가 가정과 부락에서 여성지위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로 첫째,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을 직업활동으로 보지않고 가사노동의 확대로 인식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윤정혜, 1984a). 둘째,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및 기타생산활동이 기존의 성별분업에 대한 再정의 없이 급격한 농촌사회의 변화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해 줄 사회적 지원체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권영자 외, 1987)이다. 논이나 밭의 거의 모든 일의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일은 남성들이 하고 여성들은 보조적인 일을 하는 등 남녀간의 분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주숙의 연구(1981, 1982, 1983, 1984, 1986, 1987, 1988, 1990) 들은 농촌여성 연구의 흐름과 농촌여성의 역할변화를 살펴보면에 유의한 자료이다. 즉 역할분류의 수준에서부터, 농촌여성의 농업참여 증대는 지위향상을 가져올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농업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여성 스스로가 이중 역할(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남존여비의 가치관 속에서 자신들의 의무인 양 체념함은 지위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면서 농촌여성의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각적

측면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농촌여성의 노동 과중성을 부각시키면서 계급적인 차별성을 도외시 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위변수로 농업생산수단의 소유여부와 농업경영권을 들고 있다. 1980년 후반의 연구에서는,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은 다양하며 여러 작업과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품앗이 및 고용노동 참여율이 높으며, 농업기계에의 접근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면서 농촌여성 역할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계로부터의 소외는 농촌여성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윤순영(1983)은 여성노동에 대한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정의는 보충적인(complementary) 노동이라는 전체하에 남성과 여성노동의 차이점을 기술하면서 이는 낮은 시장가치가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기계화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노동의 질적인 격차로 임금격차를 강화시킴과 연결하여 볼 때 여성노동은 더욱 낮게 평가될 위험을 안고 있다. 1990년의 연구는 10년 전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농촌여성 역할의 변화를 적고 있다. 즉 여성의 농외취업현상의 증가와 기계화는 농업에서 여성노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생산조직이나 기계화가 남성중심으로 운영됨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농촌여성 연구들은 다양한 역할 과중의 문제와 그에 따르는 지위와의 관련을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참여는 사회문화적인 여건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결정요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결국 여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으로 文化的으로 규정되는 남녀 성에 대한 구별이라고 주장하는 연구(한정우, 1987)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있어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관계를 비교문화적으로 연구한 문옥표(1987)는 공적영역에의 참여의 증대가 자율성과 독립성의 신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 농촌여성은 남편인 가장에 예속된 “가족종사자”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이다.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Rita S. Gallin(1984)은 대만의 Hsin Hsing 마을의 연구를 통하여 여성들이 집밖의 일에



〈그림 1〉 농촌여성문제의 제요인

참여함으로 해서 그들의 지위가 가치있게 재평가받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하여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전통규범과 가치에 얽매어 있다고 적고 있다. Ester Boserup(1970)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하여 원시농경사회와 발달된 지역공동체에서 농업가족내의 전통적인 노동분업은 자연스런 것이라는 전제 하에 쟁기(plough) 등 새로운 형태의 농기구와 팽이(hoe)와 손의 대응은 남성에게 높은 생산성을 보장해주게 되고, 결국에는 남성의 위신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지위를 낮추게 된다는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Whyte, Whyte(1982)는 아시아 농촌여성의 연구에서 여성의 지위와 생태학적이고 문화적인 관습과의 연관을 나타내면서, 생산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친족조직의 이념보다는 지위를 결정하는데 덜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부계적이고 가부장적인 집단들은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낮은 지위를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가구에서 여성의 수입은 가구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제공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Ruth B. Dixon(1978)은 동남아 지역의 농촌여성 연구에서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가족, 지역공동체, 사회내에서 물질적인 자원—음식, 수입, 토지—과 사회적 자원—지식, 권력, 위신—의 접근 정도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마다 여성의 법률적인 권리는 확대되었으나, 그것들의 실행은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고려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이상은 여성의 노동이 남성노동보다 낮게 평가되는 비교문화적인 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ngels(1891, Sacks, 1974 재인용)는 일찍이 남성이 소유한 사유재산의 성장은 사회에서 자유롭고 동등한 생산적인 성원인 여성으로 하여금 아내로서와 피보호자로 바꾸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유재산은 가구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변질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여성이 사회적인 면에서 성인지위를 획득하려면 사회적인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Sacks(1974)는 Engels의 논리를 비평하면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는 남성이 공적인 부분을 여성은 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하여 남성에게는 여성의 보호권과 사회적인 성인권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 여성은 사회적인 참여를 해야 성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이란 여성의 지위 분석에 있어 지역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인(ideological) 요소가 부가된 것(Brydon & Chant, 1983)임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Rosaldo(1974)는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공적인 것과 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면서, 문화적인 체계는 남성의 역할과 행위에 권위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행위들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늘 인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소위 남성의 영역이라는 부분에 참여하여도 그들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 생산적인 부분에 참여하면서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정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지의 선정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산마을은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에 속한 곳으로 필자와는 1984년부터 접촉이 있었던 지역이며, 1987년 7월 현지조사의 경험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하여 그곳의 마을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친밀감(rapport)이 형성되어 참여관찰에 의한 현지조사가 용이할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1987년과 비교하여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산마을은 경제적 조건(골프장의 개장과 방직공장의 설립, 농경기계화의 진전)에서 변화를 경험한 지역으로써 이로 인한 여성 역할의 변화를 보기에 매우 적합하리라 여겨져서 본 연구를 위한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2.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필자는 한 마을을 선정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를 살펴보는 질적 방법인 사례연구법을 택하였다. 필자는 이 마을의 이장덕에서 두 딸과 함께 방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아주머니들을 만나서 면접하였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마을의 내력에 관해서는 오○국 할아버지에게 질문하였고, 마을의 반장(3반)에게 아랫마을의 주택위치와 가구들의 대략적인 사항에 관하여 도움을 받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녹음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하였으나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기록하였다.

#### 3. 질 차

##### (1) 예비조사

1989년 11월 4-5일간은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조사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1989년 12월 22-23일 1990년 1월 13일 20일 등 3차례에 걸쳐 4박5일 동안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내용은 가족구성, 가족원의 동거여부와 비동거의 이유, 연령, 학력, 종교, 여성의 친정지역, 논밭의 소유와 경작면적, 재배하는 발작물의 종류, 농기계의 보유정도 등 마을주민들의

일반적인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 (2) 본조사

본조사는 1990년 2월 9일부터 17일까지 8박9일 동안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논농사와 밭농사에서 여성의 역할, 농기계 사용이 여성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 농번기에 여성의 하루일과, 인근 골프장과 방직공장이 마을의 노동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조사기간 중에 대동계, 목신제, 조합장 선거와 같은 마을내의 행사가 있어서 그런 행사시 여성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었다.

1990년 3월 3-4일, 8월 7-8일 10월 6-7일 등 3차례에 걸쳐서 자료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 IV. 산마을의 일반적 성격

산마을에 오늘날 마을의 지배적인 씨족 집단인 똥씨의 선조가 입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이라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보성 오씨가 들어오기 전에는 경주 김씨가 살고 있었는데 오씨가 많아짐에 따라 퇴보하게 되었다고 하며 과거에는 할머니들의 씨족중에 김씨가 많았다고도 한다. 그리고 똥씨의 입향조의 윗대인 14, 15, 16, 17대 조상들은 청주 명암동에서 거주하였었다고 한다.

#### 1. 인구 및 가족형태

산마을은 전체 43가구 중에서 30가구가 똥씨로 구성된 일성동족(一姓同族)마을(윗마을 — 28가구, 아랫마을 — 15가구)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는 163명으로 남자는 81명, 여자는 82명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대의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과 남성은 12명이나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출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산마을의 동거가족원 수는 1명에서 9명까지 분포되고 있으며, 2명이 12가구로 가장 많으며 3명과 4명은 각각 9가구이다. 한 가구당 평균 가족원 수는 약 3.8명이다. 산마을의 비동거가족원 수는 103명으로 남자는 45명 여자는 58명으로 여자가 13명 더 많다. 비동거의 이유로 남성은 취업으로 인한 경우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업으로 12명이 이에 속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한 비동거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취업으로 17명이다. 학업으로 인한 비동거는 8명으로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학업의 기회가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산마을의 가족형태를 분류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가족형태별 분류

가족 형태		가구수
부부가족	1인가족	1
	1세대가족	10
	부부와 미혼자녀	14
	편모와 미혼자녀	5
직계가족	2세대	1
	3세대	11
	4세대	1
계		43

(1989년 12월 현재)

43가구 중에서 부부가족이 30가구이며 직계가족이 13가구로 부부가족이 약 70%로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부부가족 중에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4가구로 가장 많고 1세대가족이 10가구이며 편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5가구이다. 그리고 1인 가족은 여자노인이 사는 경우이다. 직계가족에서는 3세대가족이 11가구로 가장 많고 2세대가족과 4세대가족이 각각 1가구씩이다.

## 2. 교육 및 기타사항

산마을 남성들의 연령별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체 남성 81명 가운데 국민학교 졸업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학교 재학중인 경우가 13명, 중학교 졸업이 10명, 미취학이 7명, 중학교 재학중과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가 각각 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연령별 학력분포 - 남자

학력 연령	미취학	무학	국재	국졸	중재	중졸	고재	고졸	대재	대졸	계
0-9세	7		5								12
10-19세			8		4		4				16
20-29세				4		4		2	1	1	12
30-39세				4		3					7
40-49세				8		3		1			12
50-59세				4						1	5
60-69세		1		9				1			11
70-79세		1		4							5
80-89세		1									1
계	7	3	13	33	4	10	4	4	1	2	81

(1989년 12월 현재)

산마을 여성들의 연령별 학력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전체 여성 82명 가운데 국민학교 졸업이 40명으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학의 경우도 남자는 4명인데 비하여 여자는 9명이나 된다.

산마을 여성의 통혼권을 살펴보면 충북 31가구, 충남, 4가구,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가 각각 2가구씩이며 서울이 1가구로 대부분의 결혼이 충청도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산마을의 종교로는 불교 15가구, 기독교 5가구, 천주교 2가구, 무교 20가구로 나타났다. 기독교 가구들은 호죽리의 장로교회와 용두리의 순복음교회에 나간다.

〈표 3〉 연령별 학력분포 - 여자

학력 연령	미취학	무학	국재	국졸	중재	중졸	고재	고졸	대재	대졸	계
0-9세	3		4								7
10-19세			9		11		4				24
20-29세											.
30-39세				6		2					8
40-49세				16							16
50-59세		1		8							9
60-69세		4		10							14
70-79세		1									1
80-89세		3									3
계	3	9	13	40	11	2	4				82

(1989년 12월 현재)

### 3. 경제활동구조

논과 밭의 소유규모를 통하여 산마을의 계층을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계층구분의 분류기준은

〈표 4〉 전답소유규모에 따른 계층구분

계 층 구 분	가구수
중농(3000-6000평)	10
소농( 900-3000평)	17
영세농(900평미만)	4
무농	7
비농가	5
계	43

(1989년 12월 현재)

최재석(1988)의 것을 인용하였다(논 : 58,000평, 밭 : 14,200평).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산마을은 6,000평 이상을 소유한 대농은 한 가구도 없으며, 소농과 중농이 주축을 이루는 마을임을 알 수 있다. 한 가구당 평균 소유면적은 약 1,900평(평균 경작면적은 약 2,284평)으로 나타났다.

비농가의 경우를 보면, 김○분씨는 화장품 외판원이고, 양○임할머니는 영세민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강○식씨는 식당에 다녔는데 조사기간중에 이출하였고, 황○식씨는 주로 골프장 캐디들을 상대로 민박

을 하며, 노○문씨는 청주시 강내면에서 골프장 인부들을 상대로 밥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주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농업외에 직업을 가진 가구는 골프장의 직원이 있는 가구가 5가구이고 가게집이 2가구이며 오창면에서 농약포와 수퍼마켓을 하는 가구가 각각 1가구씩이다.

산마을에서 재배하는 밭작물로는 고추, 깨, 옥수수, 참깨, 담배, 콩, 팥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에 의하면 “담배농사를 짓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담배농사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마을의 농기계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28대, 건조기 8대, 탈곡기 7대 이앙기 6대, 바인더 4대, 콤팩트 2대 트랙터 1대, 분무기 1대, 마스터기 1대로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 가운데서 경운기는 용도(로타리, 논갈이, 밭갈이, 운반, 양수, 농약살포)가 가장 다양하다.

## V. 산마을 여성의 경제적 역할의 변화

### 1. 농경기계화로 인한 변화

1987년 7월 첫 현지조사 당시에 산마을에는 이앙기가 4대 있었을 뿐, 트랙터와 콤팩트는 없었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는 1989년이 되어서야 기계화 영농단의 조직을 계기로 농기계의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



작하였다. 산마을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계층별로 분류해보면 <표 5>와 같다. 팔호안의 숫

<표 5> 농기계층별 농기계 보유 대수

계층 농기계	무농	영세농	소농	중농	계
이앙기	2			4	6
트랙터				1	1(2)
콤바인				2	2(3)

(1989년 12월 현재)

자는 공동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포함시켰을 때의 경우이다. <표 5>를 보면 무농이 구입한 2대의 이앙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기계를 중농에서 구입하고 있

다. 특히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은 20대(23세, 27세)의 젊은이가 농기계의 사용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 1990년 10월 보충조사기간에는 콤바인으로 임작업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앙기가 있는 무농은 부부의 연령이 30대(32세, 31세, 37세, 37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작면적도 각각 4,400평과 3,700평이다. 이것은 두 가구 모두 소유한 토지는 없으나 부부의 연령이 30대이므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사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가구주의 연령은 30대가 3명, 40대가 4명으로 농촌에서 중심적인 생산연령층이라 할 수 있으며 부인의 연령도 30대가 3명, 40대가 4명이고 중농인 2가구를 제외하면 소농과 무

<표 6> 트랙터와 콤바인 공동구입 가구

가 구 주	연령	소유면적	경작면적	계
(6) 김○철	42	1600평	5400평	7000평
(8) 오○수	47		8300평	8300평
(9) 오○준	39	4000평	1300평	5300평
(14) 오○섭	46	2200평	1700평	3900평
(22) 오○교	44	1300평	4000평	5300평
(30) 이○교	37	4300평	4500평	8800평
(31) 오○교	37		3500평	3500평

(1990년 10월 현재)

농가주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농업의 규모를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논농사의 단계적 과정을 통하여 기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이 담당하는 농업노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논에 두엄을 내는데(퇴비뿌리기), 이것은 주로 남성들이 담당한다. 다음 단계인 논갈이는 소쟁기질과 경운기, 트랙터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산마을에서는 “남성의 일”로 남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여성가구주 가족의 예에서는 여성이 수행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오○순(59세) 아주머니의 경우는 막내 딸과 살고 있으므로 경운기만 일꾼을 부리고 가래질, 못자리, 피사리, 비료와 농약주기, 논두렁

깎기, 논쓰리기 등의 논일을 담당한다고 하였으며, 분무기로 약을 줄 때만 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논두렁 가래질에 사용되는 농기구는 “삽”이며 논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작업으로 남녀가 같이 한다. 논두렁 가래질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노동이다. 논이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인 “로타리”를 주민들은 남성의 일로 인정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경운기로 하였으나 요즘에는 주로 트랙터를 이용한다.

비료뿌리기의 경우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는 있으나, 여자는 주로 줄을 잡아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성가구주 가족은 여성이 직접 담당하고 자녀의 도움을 보조적으로 받음을 알 수 있

다.

모내기에는 예전에 주로 여성이 하는 일이었으나 이앙기가 보급되면서 여성은 모판날라주기, 모짓기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모짓기”는 기계가 심고 난 다음 논 가장자리는 사람이 직접 심어야 하는데 이 일은 여자의 몫이다.

농약뿌리기는 남녀가 함께 하는데, 산마을에서는 세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뿌린다고 한다.

논둑깎기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데 벼가 잡초에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작업으로 호미(주민들은 “호맹이”라 부른다)를 가지고 한다.

추수하기 직전에 논을 물을 빼는 “물꼬트기”는 남녀가 함께 하는 작업으로 이 노동은 벼가 완전히 익은 다음에 추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며 삽으로 논두렁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벼베기의 경우 예전에는 “낫”을 이용하여 남녀가 같이 하였으나 콤바인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남성이 담당하고 있다. 콤바인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임대<sup>3)</sup>를 많이 하는데 농토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편이다. “작돌림”이라 불리는 작업은 콤바인이 추수하기에 편리하도록 논 가장자리의 벼를 미리 베는 것으로 여성이 주로 담당하며 벼단은 콤바인에 넣는다. 또한 콤바인으로 추수를 할 때 나락이 떨어지면 자루에 담기게 되는데 이 때 여성의 역할은 자루를 잡고 있다가 다 차면 “작크”<sup>4)</sup>를 잡그는 일이다.

푸대베매기는 논농사의 마지막 단계인데 건조된 나락을 푸대에 담은 후에 끝에 구멍이 뚫린 송곳과 얇은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푸대의 입구를 베매는 일이다. 이 일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없었으나 건조기에 벼이삭을 말리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생긴 노동이다.

결국 논농사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첫째 여성이 사용하는 도구는 호미, 낫, 송곳, 나일론 끈으로 농기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과 함께 농기계 사용 전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기계를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단지 남성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농경기계화 이전에는 여성이 중심이었던 것(모내기)에서 주변적인 노동으로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농경기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은 주변적인 것으로

질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경기계화의 정도가 저조한 밭농사(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밭갈이와 경운기로 수확물을 운반하는 것 그리고 담배잎을 건조하는 것이다)에서 여성은 여전히 주요 농경담당자인데 수행하는 역할의 특징은 첫째, 일의 과정이 주로 앉아서 “손”을 사용하므로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여성이 많으며 둘째, 밭농사에 이용되는 도구가 저급한 수준의 것이며 셋째,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노동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田作用 機種을 개발하여 여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농기계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연구(강신만, 1985)는 주목할만 하다. 특히 “담배따기”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데 이장부인의 예를 통하여(새벽 4시 20분 정도에 일어나서 밤 11시30분 경에야 잠자리에 들게 된다) 여성은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역할에서 힘겹게 삶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는 게 고단해” “머리를 안 감은지 사흘이나 됐나며” 등의 말에서 그런 어려움은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사노동은 일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할 “여성의 일”인 것이다. 그리하여 마을의 여성들은 “집안 일은 일두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농경이 기계화됨에 따라 농촌여성이 농기계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김주희(1990)는 경기도 한 부락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농경기계화는 농촌여성의 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무농내지 소농의 여성은 마을의 외부에서 경제적 기회를 찾고(이 마을은 밭농사가 거의 없으므로 농경기계화는 여성의 품을 더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 중농 이상의 경우 노동력을 갖춘 여성은 마을 외부로 완전히 나가는 대신 출퇴근하는 식으로 외부의 경제적 기회(인접지역 밭농사, 식당일)를 이

3) 임대 : 1마지기를 수확하는데 25,000원(베기-15,000원, 말리기-10,000원)이다. 1990년 10월 보충조사시에 추수가 한창이었는데 1마지기 당 30,000원(베기-20,000원, 말리기-1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장정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일을 하며 일당은 30,000원이다.

4) 작크가 달린 자루는 700원이며 콤바인으로 추수를 할 경우에 반드시 사용한다.

용한다고 적고 있다. 강남식(1984)은 여성 농업노동자 계층의 연구를 통하여 여성 참여율이 낮은 농업노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 노동과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요구 둘째, 대도구나 기계의 이용, 세째, 생산과정에서 강도 높은 노동의 요구 등의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산마을은 기계화의 정도가 미약함에도 농업노동에 있어 예전에 비하여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계화의 정도가 진전될수록 농촌여성이 기계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은 가속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약 마을내 농경이외에 경제적 기회가 발달되지 않는 한, 그리고 마을외부의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농경의 기계화는 마을의 여성들을 한편으로는 과중한 노동력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긴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를 낮춤으로써 가족 및 마을내에서의 지위 향상을 더욱 어렵게 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산마을의 경우 발농사의 비율(농농사:발농사=4:1)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여성의 농업참여가 농경기계화로 인하여 예컨대 농사가 주를 이루는 마을의 경우에 비하여 여성노동력의 농경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은 그다지 급속하지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농경이외에 경제적 기회가 가까이 와 닿는 한 농경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리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산마을에서는 그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 2. 농외활동으로 인한 변화

산마을의 인근지역에 설립된 골프장과 방직공장을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1988년 골프장이 개장되면서 마을내의 노동력 형태에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로 젊은이와 여성들이 골프장으로 일을 다짐에 따라 농경을 위한 "일고"를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품앗이"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욱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산마을 여성들은 골프장의 "잔디정리" "청소" "눈치우기(겨울)" 등의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동은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이고 임시적이다. 예를 들어 이○혜아주머니는 산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다닌 사례로 1989년에 970,00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이 아주머니는 방직공장에도 다녔으며 1990년 9월부터는 함께 일하던 사람의 소개로 수입이 더 나은 막노동(청주)을 하고 있다. 산마을에 있는 이 아주머니의 집은 비어 있으며, 청주에서 자취하는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농사는 큰집에 소작을 주었으며, 도지는 1마지기당 쌀 1 짝을 받기로 하였다고 한다(산마을 사람들은 이를 "씩도지"라고 부른다. 수확량의 반을 받는 것은 "어우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아랫마을 15가구중 10가구의 여성들이 골프장의 노동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주된 이유로는 "현금이 귀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다닌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농사일보다 일당도 더 비싸고 힘도 덜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표 7> 참조).

〈표 7〉 노동별 남녀 임금분포

성별 노동분류	남	여
농업노동	7,000원	6,000원
골프장	10,000원	8,000원
방직공장	25,000원	15,000원

(1990년 2월 현재)

"골프장 일은 3일간 계속 다녀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 "농사일이란 건 발에 가 후정거려야 하고 눈에 가 후정거려야 되지만 거기는 물에 들어 갈 필요가 없다는 기여" "여러 사람이 하나씩 거기선 요령이 생기는 기고 농사일은 일꾼이 없으면 몇명씩 안 데리구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선 눈치작전이 안되거든, 우리동네도 큰 사고라는 거" 등의 말에서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이제 방직공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방직공장(1990년부터 다녔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에 다니는 여성은 6명이고 골프장과 같이 임시직이며 단순노동인 것이 특징이다. 방직공장에 다니는 경우는 자신들의 농사일을 마치고 남은 여유노동을 마을내의 농사일 보다는 농외활동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골프장이나 방직공장은 점심을 지참해야 하지만 농업노동보다 일당이 비싸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아침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겨울에

는 5시 퇴근)이 아주머니들에게 농업노동에 비하여 매력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마을 여성들이 골프장과 방직공장의 취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농경의 기계화로 인하여 이전보다 농업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농약의 사용으로 논농사에서 “피사리”를 덜 하게 되었다거나, 밭농사에서 “유지”<sup>5)</sup>를 사용함으로 “밭매기” 작업이 이전에 비하여 줄어든 것에도 원인이 있음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농경기계화로 인하여 산마을 여성들은 농업노동으로부터 주변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소외됨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마을 외부의 경제적 기회를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는 산마을 여성들은 골프장과 방직공장과 같은 농외 취업 기회로 인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기여도가 그들의 가족내 또는 마을내 지위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 3. 목신제와 대동계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

본 부분에서는 그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마을내의 사회적이고 의례적 측면에서 여성의 위상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즉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적 행사인 “목신제”와 또한 그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사인 “대동계”를 통하여 산마을 여성들이 마을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고자 함이다.

목신제는 마을의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에 지내는 제사로 산마을에서는 중요한 의례행사이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까지만해도 봄(3월)과 가을(9월)에 두 차례의 제사를 지냈으나, 이후부터는 음력 1월14일 밤(12-1시)에 지내게 되었다. 그 느티나무는 8·15 해방 등 나라의 큰 일이 있으면 5-6번 정도 소리를 내어 운다고 할아버지는 이야기하였고, 낙엽은 땀감으로 사용하나 가지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독에 둔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목신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데 생기복덕을 가려서 정성을 드리며, 반드시 환복을 입었으며 음식은 집집마다 1-2되씩 형편에 맞게 쌀을 팔아서 준비하였다고 한다. 특히 유

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물은 우물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고인 물을 사용하며, 제사기간 동안에는 피를 보지 않으므로 닭도 잡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여자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1990년 2월10일에 있었던 목신제는 이장택에서 모든 준비를 하였는데 음식준비는 여성의 역할이었다. 준비된 음식은 사과, 배, 대추, 귤, 밤, 포, 명태, 백설기(설탕이나 소금은 넣지 않는다), 돼지머리 등이었다. 오○대 할아버지(1990년 8월에 돌아가심)가 제사를 주관하였다. 제사중에 한지(“소지”라고 함)를 태우는데 한지가 타면서 높이 올라가면 재수가 좋은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목신제는 느티나무를 잘 섬겨서 마을에 상서로운 일이 없이 잘 지내게 될 것을 기원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아주머니들은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남녀 역할의 수행은 관습적인 것으로 사회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압력에 의해서 고수되는 것(김진명, 1984)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사가 끝난 후에 남성과 여성은 음식을 따로 먹었는데 할아버지와 젊은 남자들도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대동계는 1, 2, 3반(산마을의 지역구분이다) 모두 참여하는 행사이고 각 반마다 “소동계”를 실시한다. 1990년 2월16일에 있었던 대동계에서는 이장과 반장을 선출하고 1년 동안의 회계보고를 하였다. 필자가 목격한 회의의 경우에 결정된 사항으로는 이장과 3반장은 유임되고 1, 2반은 반장을 1명으로 줄였다(가구 6의 김○철씨가 선정되었다).

동계가 있는 날은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 노는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하였다. 마을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일찍 이장택에 모이는데 여자들은 집에서 아침 먹은 것을 뒷정리해야 하므로 늦는 것이다. 집안 일은 당연한 여성의 일로 간주된다. 마을의 남성들에게 집안 일을 도와주느냐는 질문을 하였을 경우에 도와준다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장과 반장의 선거와 회계보고는 “사랑방”에서 남성들만 참석하여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게 된다. 이 때 아주머니들이 “사랑방”의 문을 열 수 있는 때

5) 유지의 사용으로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것을 걸어 내는 일이 새로운 노동으로 첨가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는 음식이 부족하니 더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음식을 들여다 줄 때 뿐이다. 즉 이런 상황은 마을의 중요한 공식적인 모임에서 여성이 소외됨을 의미한다.

음식의 준비는 여성들이 하게 된다. 남자가 도와주는 경우는 없었고 음식장만은 마을에서 돈을 추렴하여 하게 된다. 필자가 목격한 동계에 마련된 음식으로는 국수무침, 막걸리, 콩나물무침, 김치, 돼지고기 등 이었다.

음식을 먹는 데에도 할아버지들은 “아랫방”(이장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할머니들은 “웃방”, 남자들은 “사랑방”에서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부엌”과 “마당”에서 먹었다. 아주머니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부엌테기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들에게 음식을 차려 줄 경우에는 반드시 “밥상”을 이용하였으나, 여자들은 “남비”나 “양푼”에 담아서 “손”으로 들고 먹거나 심지어는 “바가지”에 담아서 먹는 아주머니도 볼 수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편을 나누어 남녀가 어울려 “웃놀이”를 하게 된다. 상품으로는 남비를 구입하였는데 부녀회장이 청주에서 공동으로 구입하였다. 놀이는 저녁6시 정도까지 계속되었으며 저녁은 각자 집으로 가서 먹게 된다.

이장대에서 뒷정리와 저녁준비는 물론 이장부인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조합장선거 전날 저녁에 한 가정에서 부인이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어편네가 뭘 지껄어”하면서 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를 목격하였다. 이것은 산마을에 있어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배제됨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산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가지 행사에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농업생산활동과 농외취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 여성들의 경제적인 기여는 마을내의 중요한 사회적이고 의례적인 부분에서 여성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평가는 그들의 경제적인 행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을내의 공식적인 행사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마을은 농업에 있어 기계화가 진전되고는 있으나,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구는 여전히 “호미” “낫” “송곳” 등 농기계 사용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농기계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농업노동력을 남성의 노동력에 비하여 질적으로 격하 시킴과 동시에 농경기계화가 더욱더 진전된다면 산마을 여성들의 기계로부터의 소외현상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농외취업의 기회로 인하여 산마을에서는 “일고”(마을 주민들은 “놈” 또는 “일꾼”이라고 부른다)를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반드시 노동으로 댓가를 지불하는 “폼앗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마을 여성들은 자신들의 농업노동을 끝내고 다른 농가의 일을 해주기보다는 농외활동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농사일보다 일이 수월하고 일당도 비싸며 출근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엌”을 희망하던 산마을 여성들에게 이러한 농외활동은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농경기계화로 인하여 소외된 여성노동을 흡수하였다는 긍정적인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마을에서 중요한 의례적인 행사인 “목신제”와 사회적인 행사인 “대동계”에서 마을의 여성들은 제외되고 있었다. 이것은 여성들의 높은 경제적인 공헌이 마을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에는 기여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이 생산노동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음과 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성별분업에 대한 재정의가 없이 이루어졌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을 산마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 자신들의 지위향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녀세대를 교육시킴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사례연구의 지역으로 택한 산마을은 토지의 소유규모를

통하여 볼 때 대농이 없으며, 발농사의 비율이 높고, 골프장과 방직공장 등 농외취업의 기회가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마을이다. 그러므로 기계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농사에서 소외되는 여성노동이 발농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대안으로는 농외 취업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농촌지역에서 여성노동을 살피는데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산마을의 가족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력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 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고수됨에 따르는 농촌여성들의 심리적 갈등의 정도를 살펴보는 작업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로 여겨진다.

### 參 考 文 獻

- 1) 강남식, “한국여성 농업노동자제급에 관한 일 연구”, 碩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4.
- 2) 강신만, “농업노동력동원 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논문집 — 인문사회과학편》, 충북대학교, 1985.
- 3) 고대문화, “이농문제와 농촌경제”, 《르뽀Ⅱ》, 고려대학교, 1983.
- 4) 권영자 외,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7.
- 5) 김주숙, “한국 농촌여성 연구 — 5개 부락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카도릭 농촌 여성회, 자료 2집, 1981.
- 6) ———, “농촌여성의 농업생산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 제5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 7) ———, “한국의 농촌여성”,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1983.
- 8) ———, “한국의 농촌여성 발전을 위한 논고”,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4.
- 9) ———, “농촌여성과 일”, 《한국여성과 일》, 이화여자대학교, 1986.
- 10) ———, “농촌여성연구의 방향과 내용, 여성학 응용 : 여성학발전”, 《여성학논집》, 제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87.
- 11) ———,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88.
- 12) ———,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 1976—87년”,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0.
- 13) 김영란, “한국농촌여성 연구를 위한 일 고찰”,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9.
- 14) 김주희, “농경기계화와 가족 : 산기마을의 사례”, 《생활문화연구》, 제4집, 15)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90.
- 16) 김진명, “聖, 俗의 생활을 통해 본 남녀 세계의 구분”, 《인류학논집》, 제7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84.
- 17) 문옥표, “농촌경제발전과 여성지위 —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학연구》,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18) 박현채, “농업 농민문제에 대한 인식”,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1984.
- 19) 성태규, “농업노동력동원 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경북 칠곡군 대원 2동을 중심으로”, 《인류학연구》,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1986.
- 20) 유귀옥, “변화하는 농촌에서의 농가주부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 21) 윤정혜, “농가경제의 측면에서 본 농촌여성문제”,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4호, 대한가정학회, 1984.
- 22) ———, “농가의 빈곤과 농촌여성문제”, 《가정대학논문집》, 인하대학교, 1984.
- 23) 이광원,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촌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9.
- 24) 이근수, “농촌 여성노동력의 잠재력과 활용방안”,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 25) 이남구, “농촌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일 연구”, 《새마을연구논총》, 경북대학교, 1984.
- 26) ———, “농촌사회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의 실태조사연구”, 《여성문제연구》,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원, 1989.
- 27) 이순전, “농촌여성의 사회참여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7.

- 28) 이우재, “한국 농업문제의 본질”, 〈한국 농업문제의 인식〉, 물결, 1977.
- 29) 이효재·김주숙,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論叢〉,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7.
- 30) 정영일, “한국농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들베개, 1984.
- 31) 조 형, “한국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1981.
- 32) 최용주, “농업노동력 감소와 농가노동력 조달양식변화”, 〈농협조사월보〉, 제33권, 9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88.
- 33) 최재석, “한국농촌사회의 변동연구”, 일지사, 1988.
- 34) 편집부편역, “아시아의 농촌과 공업화 현실”, 백산서당, 1983.
- 3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민중사, 1983.
- 36) 한정우, “도시어촌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 37) Ester Boserup, “Woma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Martin’s Press, New York, 1970.
- 38) Lynne Brydon & Sylvia Chant, “Women in the Third World”, Edward Elgar, England, 1989.
- 39) Burton & Whit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Agriculture”, 〈Journal American Anthropologist〉, Vol 86, No. 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84.
- 40) Ruth B. Dixon, “Rural Women At Work : Strategies for Development in South Asi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and London, 1978.
- 41) Carol R. Ember, “The Relative Decline in Women’s Contribution to Agriculture with Intensification”, 〈Journal American Anthropologist〉, Vol. 85, No. 2,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83.
- 42) Rita S. Gallin, “The Entry of Chinese women into the Rural Labor Force : A Case Study from Taiwan”, 〈Signs〉, Vol. 9, No. 3, 1984.  
김혜영 역, 여성연구, 제2권, 3호, 한국여성개발원, 1984, 재인용.
- 43) Michelle Zimbalist Rosaldo, “Woman, Culture, and Society : A Theoretical Overview”, 〈Woma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dford, California, 1974.
- 44) Karen Sacks, “Engels Revisited : Women,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and Private Property ” 〈Woman, Culture, and Society〉, Stand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74.
- 45) Robert Orr Whyte & Pauline Whyte, “The Women of Rural Asia”, West Press, Boulder, Colorado, 1982.
- 46) Soon Young S. Yoon, “The Role of Korean Women in National Development”, 〈Virtues in Conflict〉 : Tradition and The Korean Women Today, Sandra Mattielli, Samhwa Publishing Co, 1983.